

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 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284천 km ² (한반도의 1.3)	G D P	978억 달러 (2016년)
인구	16.5 백만 명 (2016년)	1인당 GDP	5,917 달러 (2016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US Dollar
대외정책	경제중심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1.00 (2016년)

□ 에콰도르*는 남미대륙 북단 태평양 연안의 적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1809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830년 공화국을 수립함. 전반적으로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지방 원주민 풍속 역시 강하게 남아있음.

* 에콰도르(ecuador)는 스페인어로 '적도'를 의미함.

□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으로 남미국가 중 세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최근 저유가에 따른 수출감소로 경제성장률이 0%대에서 정체된 가운데 대규모 재정적자 시현과 이를 보전하기 위한 해외차입증가로 외채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2017년 선거에서 좌파성향의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대통령과 여당인 국가연합당(AP)의 승리로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국, EU 등과 주요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e
경제성장률	4.9	4.0	0.2	-1.5	0.2
재정수지 / GDP	-4.6	-5.2	-5.2	-8.4	-5.8
소비자물가상승률	2.7	3.6	4.0	1.7	0.7

자료: IMF.

□ 저유가 및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경기부진 지속

- 에콰도르 경제는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 지속된 저유가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14년 4.0%에서 2016년 마이너스 1.5%로 급격히 둔화됨.
- 원유수출을 통한 정부의 인프라투자 확대 및 내수진작 정책이 성장을 견인하며 2011년에는 성장률이 8%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유가하락 기조에 따른 수출감소와 재정수입 감소*로 경기부진이 지속됨.
 - * 석유부문이 통상 총 수출의 50%, 재정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총 수출의 30%, 재정수입의 18%까지 하락함.
- 2015년에는 저유가 및 상대적인 달러강세*로 성장률이 0%대로 하락하였고, 2016년에는 에콰도르 지진 발생**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의 성장을 기록함.
 - * 2000년 달러공용화제도 채택으로 환율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인 달러강세가 수출경쟁력 약화로 직결됨.
 - ** 2016년 4월 16일 북서부 해안 지역에서 진도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여 약 660명이 사망
- 2017년에는 민간소비 및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가 다소 회복될 전망이나, 연초 기대 대비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대규모 재정적자 시현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로 성장률은 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유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16년 평균 \$43.7/bbl → '17년^e 평균 \$52-53/bbl) 하면서 성장률은 다소 회복되었으나, 미약한 국제유가 회복세로 인해 당분간 성장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1%대 내외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 유지

- 에콰도르는 거시경제 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2000년 달러공용화(Dollarization)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100%에 육박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999년 발생한 경제위기의 여파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99년에는 52.2%, 2000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96.1%를 기록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음.
- 정부의 세금인상 조치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와 달러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억제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2016년 1.7%를 기록하였고, 2017년에는 1% 이내로 하락할 전망이다.
- 정부는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5년 3월 세이프가드 추가관세(Safeguard Tariffs)를 도입하고 약 2,800개 수입물품(수입품의 약 32%)에 5~45%의 추가관세를 적용함. 당초 15개월간 적용예정이었으나, 세율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금년 6월 1일자로 세이프가드를 종료함.
- 2016년 6월에는 강진피해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12% → 14%)을 도입하였으며, 금년 6월 1일자로 동 조치를 정상화하면서 세이프가드 종료와 더불어 수입가격 하락을 통한 소비자물가하락에 기여함.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확대

- 에콰도르는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견지해 온 바, 석유산업 호황기에는 관련 세수 증가로 정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균형에 근접한 재정수지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저유가와 공공부문 차입증가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 2013년 공무원 임금인상, 연료보조금 부담 증가, 대선 관련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6%까지 확대되었고, 2014년에도 수력발전소 건설 등의 공공투자 등으로 인해 적자 비중이 5.2%까지 계속 확대됨.
- 정부는 긴축재정, 신규 조세 도입 등 재정수지 적자 축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2016년에는 지진복구를 위한 정부지출, 국내소비 및 세수 부진 등이 가세하여 GDP 대비 8.4%의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를 시현함.
- 2017년 출범한 모레노 정부는 민간부문 주도의 성장을 장려하고 외국투자 자본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공무원 월급삭감, 법인세 및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신규관세 부과(밀수방지기금 등) 등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노력 중임.

- 금년 셰이프가드 추가관세와 한시적 부가가치세 종료 등으로 내수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가하면서 정부수입은 증가한 반면 지출은 감소하여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감소('16년 82억 달러 → '17년 57억 달러)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GDP의 6%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의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수출 및 농수산물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취약한 제조업 기반

- 에콰도르 경제는 원유 수출 수입(收入)이 총 수출의 30% 이상, 재정수입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와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함.
- 원유 및 원유 파생상품이 2014년에는 총 수출의 51.6%, 재정수입의 27.9%를 차지하였으나 유가하락 및 이에 따른 생산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총 수출의 32.5%, 재정수입의 17.8%으로 하락함.
 - * 총수출 및 재정수입 내 석유관련 비중 추이 (에콰도르 중앙은행)
 - 석유관련수출/총수출(%): 58.0('12) → 57.0('13) → 51.6('14) → 36.3('15) → 32.5('16)
 - 석유관련수입/재정수입(%): 35.3('12) → 30.7('13) → 27.9('14) → 18.9('15) → 17.8('16)
-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에 불과하나, 전체 노동인구의 25.7%가 농업에 종사(세계은행, 2017)하고 있고, 특히 에콰도르는 세계 주요 커피, 새우, 바나나 수출국가로 이들 전통작물이 국가 전체 수출의 약 38%를 차지함.
- 제조업이 GDP의 약 34%를 차지하나, 대부분 가공식품, 직물 등으로 구성되고 자동차, 건설장비 및 연료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제조업 기반이 취약함.
 - * 에콰도르의 산업별 GDP 비중 (2016년) : 서비스업 60%, 제조업 34%, 농업 6%
- 라파엘 코레아 전임 대통령은 2016년 4월 국내 제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백색가전, 플라스틱, 제약, 농화학, 농기계, 펄프, 케이블, 변압기 및 파이프 등 9개 제조업 부문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음.

□ 달러 공용화 채택으로 독립적 통화정책 부재

- 에콰도르 정부는 3-5%대의 안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 유지와 수출입 관련 환위험 차단 등을 위해 2000년에 달러 공용화 정책을 채택함.
- 달러공용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통화 및 환율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국내 통화량은 해외자본의 유출입과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화 대출 등에 의존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석유 매장량과 구리, 금, 은 등의 광물자원 보유

- 에콰도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으로 2016년 기준 8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 부국이며, 남미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3,009억 배럴), 브라질(126억 배럴)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
 - 생산량의 경우 2016년 기준 평균 54만 배럴/일로 브라질(2.6백만 배럴/일), 베네수엘라(2.4백만 배럴/일), 콜롬비아(92만 배럴/일), 아르헨티나(62만배럴/일)에 이어 남미국가 중 다섯번째로 많음.
- 또한 구리, 금, 은, 아연 등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 잠재력이 높으며, 정부는 석유부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다각화의 일환으로 2013년 광업법 개정을 단행하고 개발을 추진 중임.
 - 개정된 광업법의 주요 내용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개발 허가절차 간소화, 채굴권 관련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입찰과정 생략 및 광산 규모별 로열티 차등 지급 등임.
 - 주요 투자국은 호주, 캐나다, 칠레 등이며, 에콰도르는 2021년까지 총 40억 달러의 투자 유치와 4년내 16,000개의 일자리 창출(현재 3,700개)을 기대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EU-에콰도르 FTA 체결, 한국과 SECA 협상 추진

- EU는 에콰도르 전체 수출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시장으로, EU에서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1월 무역협정을 개시하고 2016년 11월 FTA 체결을 최종 타결함.

- 2009년 에콰도르는 EU-안데안공동체(ANC)간 FTA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개방 범위에 대한 마찰로 불참을 선언한 바 있으며, 동 협상타결로 에콰도르는 EU 수입품의 60%, EU는 에콰도르 수입품의 95%에 대해 관세를 완화할 예정임.

* 안데안공동체(Andean Community)의 회원국은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이며, 2013년 에콰도르를 제외하고 EU-페루, EU-콜롬비아, EU-볼리비아 FTA가 발효됨.

- o 한국과는 2015년 8월부터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을 진행 중으로, 2016년 11월까지 총 5차례 협상을 실시하였고 내년 상반기 협정 타결을 기대하고 있음.

*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SECA는 에콰도르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무역협정으로 기술 및 지식교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이며, 자동차 관련 일부품목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분야 등으로 다각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임.

□ 원유생산량 증대 및 정유시설 확대 지속

- o 원유생산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유전인 ITT(Ishpingo-Tambococha-Tiputini) 개발을 진행 중이며, 소규모 광구를 대상으로 유전라운드를 개최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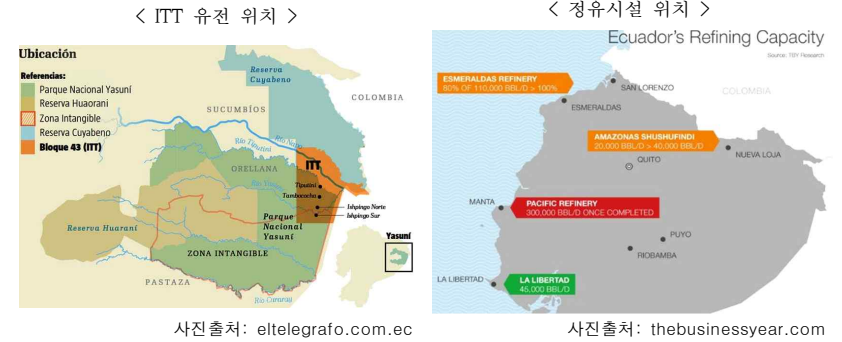
* 에콰도르는 OPEC회원국으로 감산합의 이행 대상국이나,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OPEC 감산합의를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ITT지역은 동부 아마존 지역의 야수니(Yasuni) 국립공원에 위치하며, 2007년 이후 환경보호를 이유로 개발이 금지되었으나 재정확보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2013년 8월 정부주도로 개발이 추진됨.

- 매장량은 약 17억 배럴(에콰도르 전체 원유매장량의 약 1/4)로 추정되며, 2022년 일일 30만 배럴 생산을 전망하고 있음. 한편, 에콰도르 국영석유기업 페트로아마조나스(Petroamazonas)는 중국국영기업 Sinopec과 Tiputini 유전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4월 첫 시추작업을 개시하였음.

- 아울러, 페트로아마조나스는 금년 6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통한 기존 광구의 생산량 증진을 목적으로 오레야나주 및 수쿰비오스주 소재 15개 소규모 광구(1일 생산량 5천 배럴 이하)를 대상으로 유전라운드 실시계획*을 발표함.

* 15개 광구 내 총 매장량은 191.5백만 배럴로 추정되며, 2017. 12. 15자 페트로아마조나스 발표에 따르면 7개 광구에 804백만 달러의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함.



- o 또한, 정유시설이 충분치 않아 원유를 수출하고 고가의 정유를 수입하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정유설비 현대화 및 신규 설비 건설을 추진중임.

- 에콰도르에는 국영 페트로인두스트리알(Petorindustrial)이 소유한 총 3개*의 정유공장이 있으며, 전체 정유설비의 하루 처리용량은 17만 6,000배럴로 정유수요(2014년기준 26만 5천 배럴)에 크게 미달함.

* 일일 정유능력 : Esmeraldas(11만 배럴), Amazonas(2만 배럴), La Libertad(4만 6천 배럴)

-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정유공장은 2015년 현대화작업을 완료하여 일일 정유능력이 11만 배럴까지 증가되었고, 추가로 베네수엘라 PdVSA와 공동으로 태평양 정유공장(Refineria del Pacifico megaproject)* 건설을 추진 중으로 완공시 일일 정유능력이 30만 배럴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총 건설비용은 130억 달러로, 70억 달러는 중국에서 차입하고 나머지 비용은 Petroecuador와 PdVSA가 조달할 계획이나, 자금조달 차질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 민간주도의 경제성장 가속화

- o 에콰도르 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 타계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 중으로, 2017년 5월 출범한 모레노 정부는 건설 및 자원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임.

- 지난해 정부는 에너지, 은행, 제조업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항구 공사(약 40억 달러), 5개 주요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20억 달러), 6개 산업 분야* 등도 민관합작투자(PPP) 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임.

* 펄프 및 제지, 조선, 석유화학, 석유정제, 구리, 철

- 다만,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만성적인 관료부패 개선, 정책 투명성 확보, 노동법 개정,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및 투자인센티브 강화 등이 요구됨.
- World Bank의 Doing Business(2018)에서 에콰도르는 118/190위를 기록(멕시코 49위, 페루 58위, 콜롬비아 59위)하였으며, 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7-2018)는 에콰도르의 정책 불안정성, 높은 세율, 노동규제, 부정부패 등을 사업수행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경 상 수 지	-922	-523	-2,108	1,438	-779
경 상 수 지 / G D P	-1.0	-0.5	-2.1	1.4	-0.7
상 품 수 지	-530	-64	-1,648	1,567	-739
수 출	25,586	26,597	19,050	17,425	18,327
수 입	26,116	26,661	20,698	15,858	19,066
외 환 보 유 액	3,328	3,484	2,085	3,781	2,128
총 외 채 잔 액	20,256	25,638	29,156	35,951	39,162
총 외 채 잔 액 / G D P	21.4	25.1	29.1	36.8	39.7
D . S . R .	13.0	21.2	30.5	32.6	35.5

자료: EIU, OECD

□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 기록

- 석유의존형 수출구조로 상품수지가 유가 변동에 민감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에 기반한 경상이전수지 흑자규모,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규모에 따라 경상수지가 결정됨.
- 에콰도르는 원유를 수출하고 중간재(자본재) 및 연료를 주로 수입하며, 미국, 스페인 등으로부터의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액에 힘입어 연간 20~30억 수준의 경상이전수지 흑자를 시현함.
- 한편, 서비스의 높은 해외의존도와 부채상환, 외국기업의 과실송금 등으로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0년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기조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에는 셰이프가드 추가관세* 도입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21억 달러(GDP의 2.1%)까지 확대됨.

* 정부는 2015년 3월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악화와 달러유출에 대응하고자 약 2,800개 수입품에 5~45%의 셰이프가드 추가관세(Safeguard Tariffs)를 부과함. (2017년 6월 1일 종료)

- 한편, 2016년에는 셰이프가드 추가관세와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인상(12% → 14%)*에 따른 수입감소로 상품수지가 흑자전환하고 경상이전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가 14억 달러(GDP 대비 1.4%)로 흑자전환함.

* 정부는 지진복구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함. (2017년 6월 1일 종료)

- 2017년에는 셰이프가드 추가관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 종료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와 상품수지 적자전환, 외채원리금 상환액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규모 확대 등으로 GDP 대비 1% 내외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 수입액의 1~2개월 수준에 불과

- 에콰도르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대외자금조달에 의존하여 다소 변동이 있고, 해외직접투자 유입 부진 지속(연간 FDI 유입액은 GDP의 1% 미만) 등으로 인해 월평균수입액의 1~2개월 수준에 불과함.
- 2016년 외환보유액은 40억 달러(월평균 수입액 대비 약 2개월)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절반 수준인 21억 달러(월평균 수입액 대비 약 1개월)로 감소가 예상됨.

□ 경제침체 지속 및 외채규모 확대외채상환 부담 증가

- 채무탕감 등에 힘입어 2013년까지 GDP 대비 외채규모 20% 및 공공부채 규모 30% 수준과 외채상환비율(D.S.R.) 10%대를 유지하며 외채상환부담은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었음.
- 에콰도르는 과도한 공공부채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재정법(Organic Code of Public Finance and Planning) 124조에 따라 공공부채 잔액을 GDP의 40%로 제한하고 있으며, 한도도달 시 정부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그러나, 저유가 지속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해외차입 증가로 외채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및 공공부채 규모가 각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채무불이행 이후 대중 차입금이 크게 증가('07년 7백만 달러 → '16년 약 80억 달러)하였고, 2014년 국제국유시장에 복귀하여 2017년 5월 10억 달러(10년 만기) 및 10월 25억 달러(10년 만기) 국제발행을 포함 총 118억 달러를 해외에서 조달(대부분 9~10%의 고수익률 요구)함.
- 2017년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중은 39.7%(2014년 25.1%), 외채원리금상환 비율(D.S.R.)은 35.5%(2014년 21.2%)로 2014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외채상환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III.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여당의 선거승리로 안정적 정권교체 성공, 정치기반은 다소 약화

- 2017년 4월 2일 치러진 대선에서 여당 국가연합당(AP) 소속의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대통령이 득표율 51.1%로 승리함에 따라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전임 대통령에 이어 현재까지 12년 연속 좌파진영이 집권을 지속 중임.
- 2006년 당선된 급진좌파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은 빈민 구제, 중산층 확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등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며 3선 연임을 통해 10년간 에콰도르를 장기집권함.
- 금년 2월 19일 총선에서도 여당인 AP당이 총 137석 중 74석을 차지하여 여전히 과반의석을 확보하였으나, 2013~17년 회기 대비 의석수가 26석 감소하는 등 세력이 다소 약화됨.
- 반면, 우파성향의 기회창출당(Creo) 및 통합사회행동당(SUMA)이 34석, 중도 성향의 사회기독당(PSC)이 15석을 확보하여 직전 대비 의석수를 늘렸고, AP당에 반대적인 군소정당이 나머지 14석을 차지하며 세력을 강화함.

□ 여당내 분열 및 부통령 구속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 내재

- 여당이 전대통령 지지파(Correista)와 현대통령 지지파로 분열된 가운데, 전임 대통령 지지파의 상징적 인물인 부통령 호르헤 글라스(Jorge Glas)가 뇌물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저변에 확대됨.

- 호르헤 글라스 부통령은 Odebrecht 브라질 건설사 뇌물수수 혐의로 10월 1일자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11월 7일 야당 주도 및 여당 일부의 참여로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됨.
 - * 부통령의 자진 사퇴의사가 없어 탄핵을 통한 해임만 가능
- 다만, 대다수 여당 및 야당이 모레노 대통령의 국민투표(Consulta Polular) 실시*를 지지하고 있고, 야당과의 대화 확대 및 원주민 초청 대담회 개최 등은 중장기적인 정치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 모레노 대통령은 부패 척결, 시민참여강화, 공직자 무제한 연임 무효, 부동산 초과이익환수법 폐지 등을 주요 안건으로 10월 2일자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행정부 요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지역, 이념, 소득격차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불안 요소로 상존

- 다른 남미 국가들 대비 전반적으로 사회는 안정된 편이나, 산악과 해안지역 간의 정치·경제 등 대결구도, 이념, 소득격차 등에 기인한 사회적 불만과 유전 및 광산개발을 둘러싼 원주민의 반대 등은 사회 불안 요인으로 상존함.
- '10년 9월 경찰 폭동, '12년 정부의 '아마존 광산개발정책 및 유전개발 계획'에 대한 대규모 반대시위, '15년 6월 키토 및 과야퀼시 중심으로 정부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도입 반대 시위가 발생하였고, 금년 4월에는 대선 결선투표에 패배한 야권후보의 지지자들이 불법선거를 주장하며 군소시위를 벌임.

3. 국제관계

□ 미국과 주요 교역관계 형성, EU 등과 경제협력 다변화에도 주력

- 최근 에콰도르 총 수출입액에서 대미 비중은 감소추세*이나, 미국은 여전히 에콰도르 제1의 교역국으로 2016년에는 총 수출의 32%, 수입의 25%를 대미 교역이 차지하였고, 특히 주요 수출품인 원유의 경우 56%를 미국에 수출함.
 - * 대미 수출입 비중 추이 (에콰도르 중앙은행)
 - 수출: 44.6%('13) → 43.7%('14) → 39.4%('15) → 32.4%('16)
 - 수입: 28.7%('13) → 31.6%('14) → 27.0%('15) → 25.2%('16)
- 다만, 금년말特惠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이 만료될 예정이고, 최근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등은 향후 대미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잠재함.

- 에콰도르 정부는 경제협력 다변화에도 노력 중으로, 2016년 11월 EU와 무역 협정 체결을 완료하였고, 한국과는 2015년부터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을 논의 중(2016년 11월 5차 협상 완료)에 있음.
- 모레노 대통령은 2017년 8월 대외정책 자문위원회에서 2017-22년 정부의 대외전략 핵심과제로 외국자본유치, 무역강화, 관광산업 촉진 등을 언급하고, 미국, 러시아, 터키, 한국 등과의 대외무역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함.

□ 원유를 담보로 한 대 중국 경제의존도 증가

- 2008년 정부의 자발적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재원이 부족한 에콰도르에 원유를 담보로 한 중국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양국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 석유구매권 담보부 대출계약(oil-for loan agreements)에 의해 에콰도르 원유의 70% 이상이 중국과 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석유 담보 차입을 포함한 중국으로부터의 차입금은 2016년 GDP의 8% 수준인 약 80억 달러로 추정됨.
- 석유, 광산 및 건설업 등 관련하여 90여 개의 중국 기업이 에콰도르에 진출하여 에너지, 광산, 석유 분야 등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Coca-CodoSinclair 수력발전소(22.5억 달러), San Carlos Panantza 프로젝트 (광산, 30억 달러), Mirador 프로젝트(16억 달러) 등이 있음.

□ 페루와는 해묵은 국경분쟁 지속

- 페루와는 아마존 유역의 풍부한 자원 확보를 두고 국경분쟁을 지속해 왔으나, 미국 및 남미 주변국의 중재로 양국이 1998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듬해 국경선을 확정하며 150년 간의 국경분쟁을 종식한 바 있음.
- 한편, 금년 7월 에콰도르가 남부국경 도시인 우아키야스 서쪽지역에 높이 4m의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한 것에 대해 페루 정부가 1998년 평화협정 위반임을 표명하는 등 국경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빈번한 채무재조정 및 채무불이행 경험 보유

- 에콰도르는 1830년 공화국 수립 이후 총 10번의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외채가 급증하였고 1980년대에도 국제금리 상승과 경상수지적자 누적으로 외채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외채상환 중단, 파리클럽 및 상업차관단과의 채무재조정을 반복함.
- 파리클럽은 8차례(1983년, 1985년, 1988년, 1989년, 1992년, 1994년, 2000년, 2003년)에 걸쳐 에콰도르의 채무를 재조정한 바 있음.
- 1999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 유가하락, 자본유입감소, 재정-통화정책 실패 등에 따른 경제위기 발생으로 브래디본드(Brady Bond) 및 두개의 유로본드(Eurobond)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며, 동 채권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2012년 및 2030년 만기채권으로 교환됨.
- 또한, 외채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2012년 만기 글로벌 채권(5억 달러)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였으며, 2009년 3월에도 2030년 만기 채권(27억 달러)에 대해 자발적 채무 불이행을 발표함.
- 전임 꼬레아 대통령은 외채상환재원을 사회복지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2005년 발행 2015년 만기 외채를 제외한 상기 두 종류 채권에 대해 불법성을 근거로 원리금 상환불가를 선언함.
- 한편, 2017년 6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승인금액은 총 11억 달러(단기 4.4억 달러, 중장기 6.8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68백만 달러(전체 승인 금액의 약 6.1%)로 대부분 회수불능 연체(중장기 66백만 달러)로 구성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B ~ B- 수준의 신용등급 부여

- OECD는 2014년 에콰도르의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 후 6등급을 유지 중이며, Moody's는 B3 (등급전망 Stable), Fitch는 B (등급전망 Stable)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당행	D2 (2017.12)	D2 (2016.12)
OECD	6등급 (2017.10)	6등급 (2016.10)
Moody's	B3 (2016.11)	B3 (2014.12)
Fitch	B (2017.08)	B (2016.08)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10월 5일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83년), 어업협력협정(1984년),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1986년), 문화협정(1986년),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2003년), 이중과세방지협약(2013년), 무상개발협력기본협정(2016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7년 9월말 기준 35건, 54백만 달러
- **교역규모**
 - 한국과 에콰도르의 교역규모는 2016년 5억 달러(교역순위 77위)로 미미한 수준이나, 한-에콰도르 간 포괄적경제협력협정(SECA) 체결시 상호보완적인 수출입 품목에 기반한 교역 확대가 기대됨.

<표 4>

한-에콰도르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10	주요품목
수출	812	641	434	494	자동차 및 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342	246	94	111	감각류, 곡실류, 동계품
교역규모	1,154	887	528	605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에콰도르 경제는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이 높은 바, 최근 지속된 저유가의 영향으로 성장부진을 지속하고 있음. 2017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증가 등으로 전년(-1.5%)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미진한 유가회복으로 인해 0%대에 그칠 전망이다.
- 재정긴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및 내수촉진 정책 등으로 인해 2014년 이후 GDP 대비 5%를 상회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원유수출 감소가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2017년 선거에서 여당인 AP당의 승리와 소속 레닌 모레노 대통령의 당선으로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나, AP당의 의회내 의석수 감소, 여권 내 분열, 부통령 비리수사 등은 정치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금년 5월 출범한 모레노 정부는 현재의 재정난과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민간주도의 성장정책을 추진 중이며, 적극적인 부패척결 노력, 재정긴축 노력 등으로 80%대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음.
-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적자를 대외차입으로 충당하면서 외채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2017년에는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각각 40% 및 36%에 이를 전망이다.
- 에콰도르는 2014년 국제발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하였으나, 과거 수차례의 채무재조정 및 채무불이행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태도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이정애 (☎02-6255-5712)
E-mail: aeleej@koreaexim.go.kr